

통상차관 간담회 개최

2월17일 통상산업부 박운서 차관과 항공우주업계 대표자간에 산업진흥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팔래스호텔에서 조찬간담회 형식으로 모인 자리에는 협회와 업계에서 15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박차관, 이진우 기초공업국장, 이원걸 항공우주공업과장등 4명이 참석했다.

박차관은 이날 거론된 것을 앞으로의 정책수립에서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협회에서도 이번에 거론된 내용을 정리하여 금년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 업계의 애로타개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제3차 정기총회 개최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제3차 정기총회가 지난 2월20일 증권감독원빌딩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정회원 48개사가 참석한 이번 총회에는 94년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안과 95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임원선임안 등 총 6개의안이 상정되었다.

95년도 제1차 실무위원회 개최

협회의 제반 사항을 검토하는

실무위원회가 금년들어 첫번째로 개최되었다. 회의는 지난 3월8일 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는데 총 1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월17일 개최된 상공자원부 박운서차관 초청 간담회 후속조치사항과 협회의 하부기관인 각 위원회와 협의회 개편방안 등을 주로 논의하였고, 국내항공우주산업 홍보를 위한 영문 Directory 발간과 중형항공기 수요조사를 위한 연구용역건 등을 검토했다.

회의에서 중형항공기 개발사업과 관련 기업이 조달해야 하는 자금의 일부를 상업차관으로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고 필요한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상업차관은 기업이 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외국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재정경제원 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 한편, 공공차관은 정부가 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이다.

항공우주공업단지의 조성건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등 기초조사를 실시한후 3월말경에 설명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 후속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항공우주공업단지 입주희망은 95년2월 말 현재 13개업체에서 총 15만6

천평을 신청했다. (입주희망 회사 : 현대기술개발, 한국로스트악스공업, 동서항공부품, 두원중공업, 서울차체공업, 서울차륜공업, 수성공업사, 재영금형정공, 세일중공업, 은유항공정밀, 신라항공, 덕산항공산업, 천지산업)

위원회 및 협의회 개편에 대해서는 위원회 위원이 업체위주로 구성되어 전문성이 결여된 것으로 지적됨에 따라 학계와 연구계의 외부 전문가를 적극 위촉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회원사의 신청을 받아 전면 개편하고 필요할 경우 신규 협의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한미산업협력 포럼 예산신청

금년 9월경에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미 항공우주산업 포럼을 추진하기 위해 한미산업기술협력재단에 예산을 신청했다. 동행사는 한미산업기술협력재단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것으로 양국 협회간 유대를 강화하고 국내 기업에 선진 기술정보를 접할수 있는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회의는 산업시찰을 포함 7박9일간의 일정으로 준비중이다.

중형항공기사업조합 사무국 현판식

한국중형항공기사업조합(Korean Commercial Aircraft Development Consortium: KCDC)이 2월20일 현판식을 거행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삼성항공, 대한항공, 대우중공업에서 인원을 파견하여 관리부서를 구성, 사무국 운영에 관한 기초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우선 조합 등기에 관한 업무를 비롯 업무에 필요한 비품구입과 사무국 내부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조합 사무국 전화번호는 (02) 761-6393/4 (FAX: 761-1175)이고 주소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 증권감독원빌딩 16층이다.

중형항공기 수요조사 연구용역 체결

개발 추진중인 중형항공기의 수요조사를 위한 연구가 실시된다. 이를 위해 협회는 항공우주연구소에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항공기 수요를 예측하는 연구를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동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등 제반 여건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교통량을 예측한후 총 교통량 중에서 중형항공기가 담당할 양을 추산해 필요한 항공기 수량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

정이다. 연구는 통일등 미래에 발생가능한 사항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방향으로 수행, 중형항공기의 국내 총 예상수요를 도출한다. 한편 중국도 자국의 항공기 수요조사를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erospatiale 부사장 Mr. Berret씨 면담

곽병구 상근부회장과 김태희 국제이사는 지난 2월15일 조선히텔에서 Aerospatiale사의 Berret 부사장과 만나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Aerospatiale 김양 한국지사장과 프랑스 교통부의 항공국장 Duranthon씨와 Lorne 상무관이 배석한 자리에서 Aero-spatiale 측은 중국으로부터 100인승 항공기 공동개발에 대해 일본은 배제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김대통령의 유럽 순방시 이대원 회장의 플로르즈 방문을 요청했다.

Allied Signal 부사장 Mt. Joe B.Leonard 면담

Allied Signal사 Leonard 부사장은 지난 3월3일 협회 곽병구 부회장을 만나, 중형항공기 개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자사가 세계 대부분의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중형항공

기 기술협력선이 어느나라가 되든 한국과 협력할 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사는 항공기 지자체 공급회사로는 가장 큰 회사이며 항공기 에어컨 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다.

헬기산업 현황조사

국내 민수 헬리콥터 개발사업의 가능성 타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전세계 헬리콥터 제조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협회는 주요 회원사와 공동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동 조사결과를 정책당국을 비롯 관련업체에 제공, 정책수립 및 사업계획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DMS/FT의 자료에 의하면 1993년 기준 세계의 헬기생산은 2201대(9천7백만 달러)로 집계되었는데 그중에서 민수용이 1,167대(1천4백만달러)이고 군용이 1,034대(8천3백만달러)로 나타나 생산대수로는 민수와 군용이 별차이가 없으나 금액으로는 군용기가 85%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